

원희룡 장관, 우크라이나 의회 협력관계 기반 재건협력 강화

- 5일 한-우크라이나 친선의원협회 방한의원단 만찬 간담회 개최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5일(목) 오후 서울에서 한-우크라이나 친선의원협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의원(2인) 및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종전 후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.
- 이날 간담회에는 원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던 ‘원팀 코리아’ 기업 5개사(삼성물산, 현대건설, 수자원공사, KT, 한화) 관계자도 참석하여 기업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재건 관심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- 이날 간담회는 재건협력 대표단의 키이우 방문(9.13~9.14.) 이후 양국 간 G2G, G2B 재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,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한 의원단에게 6대 선도 프로젝트*를 비롯한 양국 간 재건 협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고,
 - *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, 우만市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,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, 부차市 하수처리시설,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, 철도노선 고속화(키이우~폴란드 등)
- 안드리 니콜라이엔코(Andrii Nikolaienko) 한-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은 “종전 이전에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도 많다”며 인프라, ‘도시개발 등 프로젝트 외에 재생에너지,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도 유망하다’고 언급하였다.
- 이에, 원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리튬 개발 등 자원개발 협력에 대한 의원단의 지원을 요청하였고, 세르게이 타루타 의원(Sergiy Taruta)은 “리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, 관계기관 간 협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”라고 화답하였다.
- 아울러, 원 장관은 “영국, 독일 등 서방 국가와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 등 국제기구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”면서,

○ 원팀 코리아 기업들의 재건사업 참여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, 원 장관은 “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재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 의회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,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입법 · 예산 등을 기반으로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자”라고 밝혔다.

○ 우크라이나 의원단은 “양국 간 재건사업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답하였다.

2023. 10. 6.

국토교통부 대변인